

# 화순군·녹십자 “150억 백신투자자” ... 고용창출 기대

## 인력고용 등 부가가치 창출 백신 대량 생산시설 확장도

화순군과 ㈜GC녹십자가 150억원 규모 백신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투자로 지역인재 고용창출 등이 기대된다.

화순군(군수 구복규)과 전남도는 고품질 백신 생산을 위해 제약·바이오 선도기업 ㈜GC녹십자와 투자금액 15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에서 열린 협약식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구복규 화순군수, ㈜GC녹십자 임승호 부사장이 참석해 150억원 규모의 mRNA백신 시생산 생산 시설을 갖추고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시설을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GC녹십자는 화순 공장에 150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mRNA백신 시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기초기술을 확보해 고품질의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GC녹십자는 1969년 설립된 이래



화순군과 ㈜GC녹십자가 150억원 규모 백신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 제공

50여 년간 국내외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화순에는 2008년부터 국내 최초 백신 전문 공장을 설립해 독감백신 등을 생산하고 있다.

화순군과 ㈜GC녹십자는 mRNA백신 및 치료제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확

대된 백신·치료제 연구개발로 제품 상용화 및 대량생산 시설 또한 확장될 예정이며 인력 고용 등 더 큰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화순 내 생산되는 백신 품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 백신산업특구의 발전과 자본유입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세계 수준의 백신생산 시설 확충을 통해 화순을 세계의 백신 허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지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해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4월까지 해빙기 일제방역 곡성군, 감염병 요인 차단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4월까지 해빙기 일제방역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감염병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해 유행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빙기 방역은 3월부터 시행한다. 겨우내 월동하는 위생 해충과 병원체로 인한 방역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여름철 성충구제보다 더 효과적이다.

지난 6일 11개 읍·면에서 실시했으며 집중방역 소독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소독 대상은 총 934개소다. 대형 건물, 아파트, 지하실, 정화조, 집수정 등 유충구제시설 197개소와 인구밀집지역, 시장, 터미널, 축산농가, 하천,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처리장 등 방역취약지역 737개소다.

소독 방법은 하천, 늪지와 같은 물고인 장소에는 분무 및 유충구제 방역소독이 분기별로 실시된다. 방역취약지역 11개 읍면 자율방역단이 직접 참여해 휴대용 소독기와 차량용 소독기로 직접 살포하는 등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한다.

곡성=김대영 기자

## 영광군, 회계업무 역량강화 교육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실과소 및 읍면 회계업무 업무담당자와 신규 임용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호남공공재정연구소 한길옥 대표를 초빙 △지방계약법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 흐름 △회계 관리 규정 개정내용 △감사 사례 등 업무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 중심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 취·곤드레나물 이용 식품 개발 전남도농기원, 즉석식품 겨냥

집밥 수요가 늘면서 즉석조리식품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8일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흥재)에 따르면 최근 즉석조리식품 시장을 겨냥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취·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에 나섰다.

취와 곤드레(고려영귀류)나물은 옛날부터 즐겨 먹는 나물로 김치, 나물밥, 국거리 등에 이용해 왔으며 독특한 맛과 향은 물론 유용한 무기성분,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함유돼 있어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나물은 채식, 무글루텐 등을 선호하는 미국의 식품 시장 동향에 맞을 뿐 아니라 유럽의 식물성 제품 인기 및 K-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농기원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취·곤드레 나물을 이용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고 상온에서 장기간 유통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을 지역 업체와 협업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진우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 연구소장은 “나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해 전남산 나물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 군립도서관으로 확장 이전 함평군 평생학습관

함평군 평생학습관이 함평군립도서관으로 확장 이전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본격 개강했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평생학습관은 3개 강의실과 바리스타실, 군민 휴게공간 등으로 꾸며졌다.

군은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을 통해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함평군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오는 5월까지 군민 2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라탄공예 △성인발레 △캘리그래피 △문학글쓰기 △부동산경매실무 △칼림바 등 15개 강좌다.

함평군 관계자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제5회 옥당골 난꽃 축제 성황 영광군, 춘란 150점 전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4~5일 영광 문화원에서 제5회 옥당골 난(蘭) 꽃 축제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영광군 3개 난우회로 구성된 영광난연합회 36명의 회원들이 가꾼 한국 춘란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됐으며 대상 등 86점의 작품을 시상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의 우수한 한국 춘란을 발굴하고 난 문화의 대중화로 군민 정서 함양과 애란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도록 지원 하겠다”며 “내년에는 화순군, 함평군과 같은 규모의 전국대회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11월에 열던 난축제를 3월로 옮겨 화려한 색을 가진 난꽃과 절제된 무늬와 색상, 곡선의 자태를 뽐내는 잎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 구례 산수유꽃 활짝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지나자 구례 지리산 산수유마을에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피며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오는 11~19일 4년 만에 열리는 제24회 구례산수유꽃축제장에 오면 향긋한 산수유 향기와 함께 할 수 있다.

구례군 제공

# 나주시-한전MCS, 취약계층 발굴 협업체계 구축

## 전기 검침 위기가구 상시 발굴

나주시와 한전MCS(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한전MCS(주) (시장 정성진)와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3월 설립된 한전MCS(주)는 전력현장서비스 및 전력량계 연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전기 검침·청구·체납·고객상담 등 관련 공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효율적인 전기 사용에 기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적 특성과 장점을 살려 취약계층 발굴·협업에 나선다.

한전MCS 나주시점 직원들이 매달 1회 관내 전체가구를 방문해 전기검침 서비스와 취약계층 생활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다.

한전MCS는 생계 여건 등으로 인한 단전가구 발생 시 나주시 희망복지지원팀과 연계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정성진 시장을 비롯한 직원 104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정성진 한전MCS(주)사장은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앞장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유를 통해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 영광군, 도시가스 배관 연장 150가구 공급 확대

영광군이 주민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망 확장사업을 추진한다.

영광군은 전남 청사 소회의실에서 (주)해양에너지와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망

확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영광군과 해양에너지는 영광읍 단주리 월현마을, 월평리 월평마을, 신하리 신평마을, 녹사리 도양마을 등 4개 마을에 총

사업비 28억9000만원을 투입해 7km에 걸쳐 배관연장 사업을 추진한다.

연내 공사가 완료되면 약 150가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워 석유나 전기를 사용해 온 주민들의 경우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김도윤 기자